

포항시, 지역 대표 수소전문기업 육성 박차

포항·경북 투자, 포항TP서 수행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총 3.9억 지원, 獨 연구 기회 제공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수소 관련 기업들을 포항시 수소 경제를 이끄는 주역으로 키우기 위한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예산을 투자하고 포항테크노파크(이하 포항TP)에서 수행하는 이 사업은 수소의 우수 기술 및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지역 소재 기업에게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포항의 대표 수소전문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임을



지난해 열린 경상북도 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간담회에서 '2023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중간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산업부에서 확인받은 기업이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정부로부터 수소 관련 기술개발 사업과 및 보조 용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21년 6월 첫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87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에서는 사업 시행 첫 해인 2023

년에 ㈜에프씨아이(이하 에프씨아이)를 비롯한 7개사가 선정돼 H2MEET(국내), World Smart Energy Week FC EXPO(일본)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신규 특허 출원, 고용 창출 등 성과를 내었다. 특히 선정기업 중 하나인 ㈜해스가 경북제1호 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내 수소산업의 활성화와 투

자유치에도 큰 탄력이 붙게 됐다. '2024년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포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업(5개 사 이내)에 총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와 협업해 지역 소재 우수 기업에게 SOFC·SOEC 세라믹 소재 연구, PEMFC와 알카라인 수전해의 시스템 성능향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포항시는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역량이 있음에도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과의 접촉이 어려워 사업화에 한계가 있는 지역 소재 중소수소기업에게 기술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돕고 나아가 해외 판로를 개척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디딤돌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휴 맥도날드(Hugh McDonald) 미국 아칸소주 상무장관 일행은 지난 10일 경상북도-아칸소주 간 우호 교류 협력 방안을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예방했다. /경북도

경북도 美 아칸소주 상무장관 예방

휴 맥도날드(Hugh McDonald) 미국 아칸소주 상무장관 일행이 지난 10일 경상북도-아칸소주 간 우호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예방했다. 아칸소주는 미국 남부 중서부에 있는 주로, 한국전쟁 영웅 맥아더 장군이 이곳 아칸소 리틀록 출신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방정부 간 우호 교류 뿐만 아니라, 우수인력 유치 및 자매결연 체결 등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경북=장영우 기자

전남도, 호치민에 상설판매장 열어 농수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신짜오 코리아 마트 입점 16개 수출기업 44개 품목

베트남 호치민에 전남산 농수산물 품 상설판매장이 문을 열었다. 이로써 전남은 전 세계 9개 나라 23개로, 지구촌 곳곳에 상설판매장을 구축해 농수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호치민 상설판매장은 한국식품 대표 마켓인 신짜오 코리아 마트(대표 임맹산)에 입점했다. 전남산 농수산물 품을 전문 취급 상설판매장이다. 신짜오 코리아 마트는 호치민과 봉따우, 빈즈, 무이네, 동나이 지역에 21개 식품전문매장을 운영 중이다.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 한인을 대상으로 전복차우더(수프), 김, 미역, 해초국수, 유자초코크런치, 한식육수 등 전남 16개 수출 기업 44개 품목의 농수산식품을 수입해 판매하게 된다.



베트남 호치민에 전남산 농수산물 품 상설판매장이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9개국에서 22개 상설판매장을 운영해 지난해 기준 1026만 달러의 수출고를 달성했고, 올해 신규 운영사 선정을 통해 연말까지 10개 매장을 추가로 개장할 예정이다. 신현근도 국제협력관은 "상설판매장이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전진기지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승녀 기자 ysn6313@

경남도, 공공 온실가스 39.7% 감축

목표감축률 36%... 초과 달성

경남도는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배출량 대비 5만5783t CO2eq 감축해 목표 감축률 36%를 초과한 39.7%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배출량은 기관별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으로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한 것을 말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지난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청사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대기전력 저감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탄

소중립포인트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정부 목표감축률보다 3.7% 초과한 39.7% 달성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남도는 2017년부터 7년 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등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남도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구시, 식품산업 수출 중심으로 전환

'대구 식품산업 육성 계획' 추진

대구광역시시는 해외 한민족 최대 축제인 LA 한인 축제와 대만 최대 식품 박람회인 FOOD TAIPEI에 대구 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유통망 구축에 나서 내수 위주의 지역 식품산업을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2024년 대구 식품산업 육성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1년 대구의 식품산업 매출액은 24조 4천억 원 규모로 5년간 연평균 5.1%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내수 위주로 국내 경기의 영향을 쉽게 받고 브랜드 인지도를 내세운 대기업과 경쟁에서 밀릴 뿐

아니라 가격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광역시시는 지역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중심의 윈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수출 주도의 글로벌 대구 식품산업 육성을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윈스톱 지원은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해 ▲1단계로 국가별, 시장별 맞춤형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2단계로 수출에 필요한 할랄, 코셔, FDA 등 각종 국제 인증을 지원하며 ▲3단계로 국내외 판촉 지원을 통해 대구 식품의 수출 확대를 내용으로 한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경북도, 지역맞춤형 마을숲정원 조성

영양·영덕군 최종 사업대상지 선정

경북도는 마을 주변 자투리땅이나 유휴부지, 공한지 등에 지역맞춤형 마을숲정원 조성에 나선다. 도는 지난 8일 2024년도 경북형마을숲정원 조성 사업지로 영양·영덕군을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경북형마을숲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신규시책으로 경북 내 마을 주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공한지 등을 지역맞춤형 마을숲 정원으로 조성해 녹색생활 공간 확충과 생활 속 정원문화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영양군 '선바위 마을숲정원'은 입암면 신구리 95-7 일대 1만 1500㎡ 부지에 영양군 분재야생화 테마파크와 연계한 정원을 조성한다. 영덕군 '강구항 마을숲정원'은 강구면 삼사리 일원 4328㎡ 부지에 주민

휴게공간 제공 및 이미 조성된 실외 정원과 연계한 테마정원 조성한다. 현 사업대상지는 영양군, 영덕군 내 방치된 대규모 유휴지로 녹색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올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지 요건 충족 여부를 수요조사 후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대상지의 규모, 입지 및 마을 주변 접근성, 사후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 사업지 2개 지역은 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개소당 1억 8000만원 내외로 지원된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시·군 마을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w57@

하동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16억 투입

경남 하동군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예산 16억원을 투입한다. 하동군은 2018년부터 미세먼지 대응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올해도 16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조기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3가지 세부 사업으로 진행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울산시 관내 대학 경쟁력 강화 나서

울산시는 지역의 청년인구를 늘리고, 관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관내 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모 결과 관내 대학 5개(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울산캠퍼스)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울산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주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 지원

경주시는 지난 9일 평생학습가족관에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 대상자로 선정된 20세대 가족들을 초청해 환송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주남영 경주시장, 임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상욱 국제친선교류협의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경주시국제친선교류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자녀양육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오랜 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여성들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거주 정착을 돕고자 마련됐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